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斗燮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12世祖 贈戶曹參判行縣監公 諱 福(휘:픽) 墓碣銘



▶ 향토유적 제8호. 소재지 : 金浦市 場基洞 高昌山 先塋下

석촌 심공(石村 沈公)의 휘는 픽(幅)이오, 字는 거화(去華)니 출생하면서 특이한 체질로 성장하고 성격은 더욱 엄격하여 세상 사와는 접촉이 드물고, 집안에서는 효도와 우애가 극진하였으며, 사람과 접촉하는 데는 화열하였다.

스스로 말씀하기를 높은 관원을 만나면 눈을 가리고 지나가게 되며 으스스한 곳의 초가집을 보면 반드시 서성거리며 돌아보게 되니 팔을 베고 물을 마시는 즐거움을 상상하여 불만인데 높은 사람의 관복 입을 것을 만나면 마음으로 좋지 않게 여기고 약자를 돕고 강자를 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고 짐승이라도 죽이는 것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생겨 슬프게 탄식하게 데니 이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괴이하게 보일 것이나 나도 역시 내 마음을 무슨 마음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공께서 존경하는 분은 구봉(龜峰) : 宋翼

彌, 사계(沙溪 : 金長生)의 두 선생이오, 어울려 놀던 벗은 모두 당대의 名士인 권석주(石州 : 權驥), 이죽서(竹西 : 李敏迪), 신현현(申玄軒 : 象村=申欽) 같은 이가 막역한 친구간이었다. 대개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공의 포부(抱負)를 알만하고 百世 후에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출생하여 성동(成童)시절에 임진왜란을 만나서 아버지를 따라 평안도(關西)로 피난 갔다가 甲午(1594)년에 서울로 올라왔고 곧 김포의 옛집으로 돌아와 학문을 게을리 아니하는데 광해(光海)의 혼탁(混濁)한 정치를 만나서 벼슬을 사절하였고 仁祖反正(1623) 후에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제수되었다. 주부(主簿) 감찰(監察)을 역임(歷任)한 후 황간현감(黃澗縣監)으로 부임하여서는 법에 따라 정치를 하니 관리는 그 위엄에 복종하고, 백성은 그 은혜에 감동되었는데 대관(臺官 : 司憲府官員)을 거스르게

되어 호연(浩然)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었다. 甲戌(1634)년에 강화감목(江華監牧)이 되었는데 병자호란(丙子胡亂 : 1636) 때에 아우 흡곡공(歙谷公 : 弟 諱 揚)이 마니산(摩尼山) 밑에서 순직하므로 이때로부터 세상에 뜻이 없어져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연못에 연(蓮)을 심고 언덕에 국화(菊花)를 심어서 가꾸며 그 사이에서 시(詩)를 읊으면서 배회(徘徊)하니 유연(悠然)한 일사(逸士)의 취미가 있었다. 현종 계묘(顯宗癸卯 : 1663)년 10월 5일에 별세하시니 宣祖 戊寅(1578)년 12월 15일에 출생함으로부터 향년(享年)이 86세이며, 김포 고창산 임좌에 안장하였다. 뒤에 아들이 귀하게 됨으로써 증직이 호조참판(戶曹參判)이 되었다.

부인은 청주 한씨(淸州韓氏)니 대호군 부길(大護軍 富吉)의 따님이오, 청천부원군백윤(淸川府院君伯倫)의 五代孫이며 庚辰生(1580)으로 丙申(1656)년 7월 11일에 별세하시니 享年 77세이며 묘소는 합평이실(同壘異室)이다.

沈氏는 관향(貫鄉)이 靑松인데 고려조의 위위시승(衛尉寺丞 諱 : 洪孚)를 始祖로 그 후에 나라의 공신(勳臣)이 계속되었으니 청성백 휘 덕부(淸城伯 諱 : 德符)와 청천부원군 휘 온(淸川府院君 諱 : 溫)과 공숙공 휘 회(恭肅公 諱 滄)와 충혜공 휘 연원(忠惠公 諱 : 連源)과 청릉부원군 휘 강(淸陵府院君 諱 : 綱)은 高祖 以上이오, 부친(考)은 휘(諱)가 효겸(孝謙)이니 군수로 증직이조참판이오, 모친(妣) 의령 남씨(宜寧南氏)는 응서(應瑞)의 따님이오, 고성 이씨(固城李氏)는 경(慶)의 따님인데 공은 이씨의 소생이다. 이들은 동지정일(同知廷逸)과 정철(廷

哲)과 동지정결(同知廷傑)과 정천(廷踐)과 정한(廷漢)과 정호(廷豪)요, 딸은 이인부(李仁富)와 송홍(宋泓)과 윤승(尹陞)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廷逸의 소생 가(榘)는 참봉이오, 딸은 이신(李薰)과 한상(韓相)에게 출가하였다. 정철(廷哲)의 소생은 침(椿)이오, 정결(廷傑)의 소생 현(愼)은 첨지(僉知)요, 능(陵)은 봉직랑(奉直郎)이며 나머지는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아아! 공의 행적은 공의 현손 정좌와공(玄孫靜坐窩公)의 행장(行狀)으로서 넉넉히 고증되는 것이다. 공의 후손들이 비석(碑石)을 세우기로 합의하고 상필(相弼)로 하여금 나에게 비명(碑銘)을 부탁하는데 나는 정좌와선생(靜坐窩先生)을 이미 벌써 오래 전부터 사모하고 문집도 보았는데 공의 행장이 문집(文集)에 기록된 것을 참고하여 이번 비문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공의 사적을 행장 속에서 약간 채택하였으나 깊이 느낀 바가 있으며 행장문에 이르기를 공의 시(詩)는 순수하고 풍부하며 문(文)은 역시 평탄하고 충실하며 순박한 것이 과연 그대로인데 집에 공의 문집 장서가 무릇 10권이라고 하였으나 지금 열람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이다.

銘하여 이르기를

공의 스승과 친구를 본다면 그의 포부를 알만 하도다. 마음속에 쌓인 경륜은 때를 만나지 못하여 펼치지 못 하였도다. 순박한 그대로의 논리는 누구인들 사욕(私慾)이 섞였다고 할 것인가? 고창산(高昌山) 묘소 앞에 지나가는 사람은 모두 높이 우러러 숭배할 것이다.

개천(開天) 4324년 辛未 7월 7日

전성군관전의 은진 송공회(津津 宋貢誦) 삼가 지음

公 告

靑松沈氏大宗會

四十回定期總會開催

二〇一〇年度第四十回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公私間에 다망하실 줄 사료되오나 많이 參席하여 주시기를 仰望하나이다.

◎ 다 음 ◎

- ◇ 日時 : 二〇一〇年 四月 二十日 (火曜) 日) 午前十一時
- ◇ 場所 : 서울 중로구 명륜동(유림회관 三층)
- ◇ 電話 : (〇二) 七四四-〇六七七
- ◇ 會費 : 壹萬원

◎ 부의안건 ◎

- 一. 二〇〇九年度 會務報告
- 二. 二〇〇九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決算과 承認의 件
- 三. 二〇一〇年度 事業計劃 承認의 件
- 四. 二〇一〇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豫算(案) 承認의 件
- 五. 定款 改定의 件
- 六. 其他 宗務에 關한 事項

二〇一〇年 三月 日

靑松심씨대중회
會長 沈斗燮

◇ 연락처 : (〇二) 二二六七-七八五七
※ 별도로 개인별 통지가 없아오니 유의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始祖山所 淨化事業

- 전임 대종회장님 공적비와 송덕비 건립 -

1971년 5월 30일 대종회 창립시부터 8년여 회장을 역임하신 성택(聖澤)회장님과 이후 28년간 대종회를 이끌어 오신 명구(明求)회장님의 송조돈목(崇祖敦睦) 정신과 대종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공로를 기리면서 두 분 회장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빛나는 업적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청송의 시조산소 묘하에 『聖澤會長 功績碑』와 『明求會長 頌德碑』를 2009년 11월 건립하였으며 금년 4월 6일 시조산소 춘향일에 제막식을 거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묘객의 편의를 위하여 대형버스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시조산소 진입로와 주차장을 확장한 후 콘크리트로 포장하였으며, 중대산소에 오르는 경사로에도 방부목으로 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조산소와 중대산소 진입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헌성해 주신 안효공(安孝公 諱 濶)종회와 신천공(信川公 諱 孝謙)종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택회장 공적비

명구회장 송덕비

青松沈氏大宗會長 諱 聖澤 功績碑

공(公)의 성은 심(沈)이요, 본관은 청송(靑松)으로 휘는 성택(聖澤)이다. 시조는 고려 문림랑 위위시승 휘 홍부(文林郎 衛尉寺丞 諱 洪孚)이며, 4세조 악은공 휘 원부(岳隱公 諱 元符)의 둘째 아드님인 현령공 휘 천주(縣令公 諱 天柱)의 17대손이다.

시조께서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청송에 뿌리를 내리신 후 요산요수(樂山樂水)하시며 덕적(積德)으로 인후(仁厚)의 씨를 심시고 배양하신 후광을 받아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거듭하여 전국 각지에 15만이 분포되는 대문벌(大門閭)이 형성되고, 3왕후 4부마와 13정승에 3대정승 그리고 196명의 대과급제와 고관대작의 세세배출(世世輩出)로 삼한갑족(三韓甲族)이 되었다.

회고컨대 만취당상공 휘 통원(晩翠堂相公 諱 通源)께서 1545년(仁宗 一)에 세보초판(世譜初版)을 편집간행함에 따라 자료모집의 수단으로 대문중제도가 창시(創始)된 후로 연면(連綿)히 계승되어 역대 유사(有司)는 세보의 속간을 위시해서 실전된 선영(先塋)의 추심(推壽)과 보수 및 향사 등 송조정신(崇祖精神)을 신앙으로 삼고 돈족우애(敦族友愛)하는 미풍양속을 확립하여 이를 전통적 가풍(家風)으로 삼아왔다.

광복후에는 말살되어 가던 전통을 되살리고 돈족(敦族)의 대업을 달성하고자 전국적인 조직체로 돈목회(敦睦會)를 결성하였으나, 운영부실로 유명무실한 상태였다가 1971년 5월 30일에 새로운 조직체로 대종회(大宗會)가 창설되었다. 이때 초대회장에 당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임 중이었던 공(公)께서 만장의 환호와 박수갈채로 선임되었다.

공은 성품이 근엄하며 공사가 분명한 전형적인 사법관의 풍모였으나 내유외강(內柔外剛)으로 인자하였으며, 송조사상(崇祖思想)과 애족이념(愛族理念)이 투철하고, 화기에애한 인품은 능히 종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공께서 대구 부산 지검차장 광주 서울 고검차장과 춘천 대전 전주 지검장으로 재임 중에는 종인들에게 직장의 문호를 개방하고 영접하며 환대하니 도처인심이 집중하고 신뢰감이 중첩되어 2년 임기의 회장

직을 당신의 극구고사에도 불구하고 5선 중임되시는 기록을 남겼다. 근 10년에 걸쳐 종무를 통괄하시는 동안 성취하신 공적은 실로 허다하고 찬연하였다.

각 지방의 산하종회(傘下宗會)가 우후죽순처럼 파생 정비되었고 춘추로 5처산소 순례참배(巡禮參拜) 행사를 주관하여 열렬한 호응하여 송조사상이 고취되었으며, 기관지 청송보의 발행으로 종사(宗事)를 홍보하고 선세사적(先世事蹟)을 소개하는데 공헌한바 컸다.

남당산(南堂山) 재각(齋閣)인 영모재(永慕齋)의 웅장한 개축을 위시해서 악은공(岳隱公)의 설단(設壇)과 경의재(景義齋)의 신축 및 안성과 청주 제각(祭閣)의 증개축 사업은 획기적인 업적이며, 6·25사변 당시 지적부와 등기부가 소실됨으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종중재산 소유권 분쟁사건 중 안효공(安孝公) 종산과 함문지후공(閔門祗侯公) 종산이 각각 종회명의로 복구되었으며, 청화부원군(靑華府院君) 종토 역시 회수등기조치 되었다.

그 외에 이경공(夷敬公)과 판관공(判官公) 종토 및 충익공(忠翼公) 종산도 종손과의 분쟁이 심화 중이었던바 공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원으로 승소 또는 막후협약이 성립되어 전 필지가 종중재산으로 영구보존하게 되었으며, 또한 숙원사업인 대종회 회관을 매입하게 된 것은 특기할만한 공적이었다 따라서 공의 수완과 활약이 가일층 기대되었던바 인명은 재천이라 인생무상하도다 우연한 특병으로 치유 중 불행히도 56세의 노숙(老宿)한 연치(年齒)에 1979년 9월 19일 홀연히 하세(下世)하시니 오호(嗚呼)라 비재(悲哉)여 통재(痛哉)라.

그러나 공께서 생전에 남기신 혁혁한 공적(功績)은 종사(宗事)에 영세불멸(永世不滅)할지며 찬연(燦然)히 빛나리라. 1981년 대종회에서 공(公)의 묘전에 공적비를 세워 드렸으나 초대 회장님의 업적을 종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조산소 묘하에 다시 세우게 되었다

2009年 己丑 11月 日
青松沈氏大宗會 謹啓

青松沈氏大宗會長 諱 明求 頌德碑

공(公)의 성은 심(沈)이요 본관은 청송(靑松)으로 휘는 명구(明求)이며, 호는 금병(錦屏)이다. 고려 문림랑 위위시승 휘 홍부(文林郎 衛尉寺丞 諱 洪孚)를 시조로 대대로 후손이 번성하여 조선조에 3왕후 4부마 13상신을 배출한 명문대가의 24세손이다.

4세조 청성백 휘 덕부(靑城伯 諱 德符)는 시호가 정안(定安)으로 조선왕조창업과 한양 천도의 훈공으로 정종(定宗)조에 좌정승에 올랐으며, 이 분의 넷째 아드님 인수부윤공 휘 징(仁壽府尹公 諱 澄)이 파조(派祖)이다. 7세조 망세정공 휘 선(忘世亭公 諱 璿)은 영동령부사로 경기와 황해감사를 지냈으며, 8세조 휘 안인(諱 安仁)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이고, 10세조 둔암공 휘 광언(鈍庵公 諱 光彦)은 좌참찬으로 시호가 호안(胡安)이며, 11세조 휘 금(諱 鎬)은 과천현감으로 증이조판서이다. 14세조 만사공 휘 지원(晩沙公 諱 之源)은 영의정이며, 16세조 휘 최최(諱 廷最)는 지중추부사로 함흥목사이고, 19세조 이조참판 휘 돈영(諱 敦永)이 공의 5대조이다.

공은 부친 종익(鍾益)공과 모친 한산이씨의 둘째 아들로 1922년 임술 8월 13일에 태어났으며, 칠원 윤혜원(漆原 尹惠遠)여사와 결혼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1948년 인천에서 항만물류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선광(鮮光)을 창업한 후 국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회사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그룹을 이루었다.

인천경영자협회장 경인일보사장 한국관세협회장 등을 역임하고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상하였으며, 2002년에는 선광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선친이신 종익(鍾益)공은 조상을 섬기는 일에 지극정성을 다하셨는데, 그 뜻을 이어받아 1971년 대종회 창립과 함께 부회장을 역임하고, 1980년 대종회장에 추대되어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시조산소를 비롯하여 전국 5처산소의 정화사업을 완료하였고, 4세조 악은공 휘 원부(岳隱公 諱 元符)의 재실인 경의재(景義齋) 창건에도

기여하였다. 1994년 서울 중심지에 있는 4층 건물을 대종회관으로 구입하여 찬경회관(讚慶會館)이라 명명하니, 문중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으며, 1998년 대동세보 간행위원장을 맡아 4년만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전 12권의 대동세보(경진보)를 발간하고 인터넷홈페이지도 개설하였다.

2002년 시조산소 입구와 찬경루(讚慶樓) 앞에 우리 문중의 내력을 기술한 청송심씨사적비(靑松沈氏事蹟碑)를 건립하였으며, 2008년에는 청송에 찬경회관을 신축하니 우리의 관향이 더욱 빛나게 되었다. 종회업무는 항상 회장단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합리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모든 종인들이 공의 인품을 존경하여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종회장에 추대하니, 28년간 연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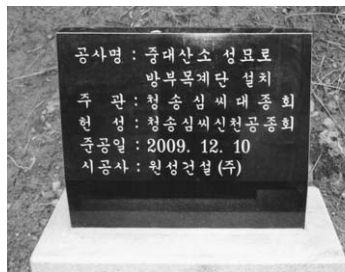
공의 12대조 숙천공 휘 종침(肅川公 諱 宗忱)이하 영의정 만사공 휘 지원(晩沙公 諱 之源)과 그 자손들까지 모신 파주 분수리 선영은 1614년부터 150년간 평온을 유지하였으나 1763년 파평윤씨문중에서 조상의 묘를 찾는다고 만사상공의 묘역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진 뒤 양 문중간에는 240여년간 산송(山訟)이 그치지 않았다 공은 양 문중의 오랜 다툼이 후대에까지 지속될 것을 우려하여 이의 해소를 생전의 과업으로 삼고 노력한 끝에 2005년 7월 파평윤씨문중과 화해를 이루어 냈으며 이후 2년여 동안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접한 우리의 종중묘역으로 천장(遷葬)에 착수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지병이 악화되어 애석하게도 마무리를 보지 못하고 2008년 5월 28일 향년 87세로 영면(永眠)하시니 공의 인품과 업적을 추모하는 애도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대종회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추모하고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우리 관향인 청송의 시조산소 묘하에 송덕비를 세우니 공의 유덕(遺德)은 후손 만대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2009年 己丑 11月 日
青松沈氏大宗會 謹啓



▲시조산소 제2주차장



▲시조산소 진입로 확장공사



▲중대산소 경사로 방부목 계단공사

제 57회 정기 이사회 개최



대중회 제57회 정기 이사회를 2010년 3월 23일(화) 11시에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총 123명(위임장 제출 38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인사말에 이어 2009년도 업무추진 사항과 특별 및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결과 보고, 201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한바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이어 정관 일부 변경(안)을 보고 심의하였으며, 제40회 정기총회를 4월 20일(화) 성균관 유림회관(3층)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중회에는 종회발전에 공헌하신 두 분 전임 회장님을 추모하고 송조돈목 정신과 생전에 이룩해 놓으신 훌륭한 업적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9년 11월에 「성택(聖澤)회장 공적비」와 「명구(明求)회장 송덕비」를 시조산소 묘하에 건립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6일 시조산소 춘향을 봉행한 후 제막식 행사를 갖기로 하였으니 전국 일가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賀雲 沈重 熹

哭挽 舍弟 衡輔 君(곡만 사제 형보 군)
二八青春에 한 해를 더한 어린 몸이
붉은 무리(1)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시산(屍山)을 넘고 혈하(血河)를 건너 사선(死線)을
헤매던 아우여

눈 덮힌山河에 너의 봄은 오고 있는데
화사(華奢)한 그 때를 마다하고 어디로 가느냐
품은 뜻 못다 풀고 어디로 가느냐

아픈 몸 설운 마음 참고 견딘 그 세월에
눈물도 많았으리 한숨도 깊었으리
아픈 나날 三十年을 못다 풀고 가는구나

차들 같은 네 성품(性品)에 사랑도 많았어라
그 사랑 베풀다 말고 어디로 가느냐
못다 한 사랑 남겨둔채 구천(九泉)으로 가는구나.

詩를 찾아 술을 즐겨 보내온 八十年에
초월자(2) 남겨두고 妻子결을 떠나는가
超越者 길을 따라 시름 풀고 편히 가거라.

2010년 1월 16일 舍兄 哭

- 註 -

(1) 六·二五 韓國戰爭
(2) 沈衡輔詩集(拙著 青松源流之曲參照) 衡輔君은 1960~1970年代의 韓國文壇界의 重鎮 宵泉·月灘·怡山·嶺雲의 사랑과 激勵로 現代文學誌를 비롯해 女苑·國防傘下機關誌·日刊紙 等に 많은 詩와 隨筆을 發表하였다. 崔南善의 首弟子요 徐廷柱詩人의 同壻인 金冠植과의 交友關係가 두터웠다. 天才詩人 金冠植의 急逝로 衡輔君은 精神上的 深刻한 打擊을 받고 暴飲으로 因한 身病과 싸우다 79세를 一期로 別世하였다. 戰爭中에 公報處次長을 지낸 宵泉 李軒求先生은 梨花女子大學校文科大學長時節에 最前線에서 服務中이던 衡輔君을 찾아 慰問하고 激勵해준 事實은 그 當時文壇界의 話題가 되기도 하였다.

公 告

青松沈氏仁壽府尹公派宗會

二〇一〇年度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忘世亭公春享節祀奉行日에 開催합니다.

◇ 春享日時 : 二〇一〇年 五月 六日(陰 三月 二十三日) 十一時

◇ 總會日時 : 二〇一〇年 五月 六日(陰 三月 二十三日) 十二時

◇ 總會場所 : 南陽州市 梧南邑 陽地里 忘世亭公墓下

◇ 電話 : (〇二)四〇一-七三七七

一· 會務報告

二· 監查報告

三· 二〇〇九年度 特別會計收入支出 決算報告承認의 件

四· 二〇〇九年度 一般會計收入支出 決算報告承認의 件

五· 二〇一〇年度 事業計劃(案)承認의 件

六· 二〇一〇年度 特別會計收入支出 豫算(案)承認의 件

七· 二〇一〇年度 一般會計收入支出 豫算(案)承認의 件

八· 任員改選件

九· 其他宗務에 關한事項

二〇一〇年 三月 日

會長 沈晶求

靑松報 (창간사)

금년 초여름 어느 일요일에 서울 근교에 있는 양평의 용문사(龍門寺)에 놀러간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녹음방초승화(綠陰芳草勝花)사라 모든 수목들이 각기 신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어느 부락 앞에 있는 큰 괴목(槐木)도 역시 초하의 새잎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지나면서 보니 그 괴목은 몇 아름드리 큰 나무였는데 그 밑둥치는 봄바람 가을비에 시달렸는지 둥치의 속은 완전히 썩어서 속이 텅 비어 있었고 다만 그 둥치의 일부분만 남아서 멀리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무성하고 싱싱하게 보이든 나무가 그 실은 이와 같이 썩고 병들어 불원(不遠)한 장래에 고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경이나 지나서 용문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절 경내에는 높이 40여 m 나무들레 11m 수령 1100여년 이라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큰 유실수라고 말하는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1100년이란 연륜을 겪고 나서도 어디 한군데 상하고 썩은 곳 없이 단단하고 싱싱한 나무였습니다. 나무도 이와 같습니다. 앞에 말한 괴목과 같이 그대로 방치하면 역시 속이 썩고 불실하여 불원간 말라 죽을 것입니다 마는 은행나무와 같이 뿌리에는 밑거름을 주고 가지를 손질하고 지엽(枝葉)까지를 잘 다듬으면 천년 아니 만년 이라도 잘 자랄 것입니다.

우리 청송심성이란 대화수(大花樹)도 이와 꼭 같은 이치입니다. 거름주고 가꾸고 손질하면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벌써 자라고 자라고 또 마디마디의 가지가 풍성하여 20여 마디나 자란 가지가 있는가 하면 20여 마디에서 맴돌고 있는 잘 자라지 못한 가지도 있습니다. 또 현재 자기가 속하고 있는 가지가 어느 큰 가지에 원유(源

由)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지엽(枝葉)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靑松報는 우리의 靑松沈이란 대화수의 자라는 모습과 또 이것이 잘 자라게 가꾸고 손질하고 북돋우는 방법들을 서로 상의하고 소속 가지를 모르는 지엽에게는 그 불은바 근간(根幹)을 잘 가려 내주고 지엽 한잎 한잎의 상황을 잘 알리고 알고 또 도우며 서로 서로 협조하여 이 화수(花樹)가 잎이 무성하고 싱싱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구실을 다 할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하여 이 靑松報를 내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 고고(呱呱)의 성을 울린 우리 청송보가 일취월장(日就月將)하여 그 연륜을 더해갈수록 살찌고 속이 차서 우리 첨종(僉宗) 모두가 이 청송보로서 뭉치고 돕는 구리풀(애교풀)로 삼고 먼 앞날까지 무궁한 발전 있기를 빌고 또 노력합니다. 몇 마디 창간사에 대합니다.

1971. 7. 28

大宗會長 聖澤

沈영감 심민섭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 2

副會長 沈相殷 제공

팔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이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이 그런데 네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을 가겠지 그러면 네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네 아내를 네 여동생과 비교해보거라 네 여동생이 힘들면 네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이 내 피눈물같은 내 아들이 내 행복이 네 행복이 아니라 네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흑여 나 때문에 너희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에미의 모정이라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들 아깝지 않으리 물론 서운하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라

그러나 아들이 네가 가정을 이룬 후 에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평생 너희 행복을 위해 바쳐 온 부모다 이제는 에미 애비가 좀 편안히 살아도 되지 않겠니? 너희 힘든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어미 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해다오 너의 에미 애비도 부족하게 살면서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나 너희 힘든거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어미 애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쳐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걸 너희도 좀 이해해다오.

우리도 여태 너희들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 조금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안되겠니? 잔소리 같이만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렴..우린 그걸 모른단다 모르는게 약이란다.

아들이 우리가 원하는건 너희의 행복이라다 그러나 너희도 늙은 어미 아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 달라는 말하지 말아라 너 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날 나쁜 시에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네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느끼거라 아들이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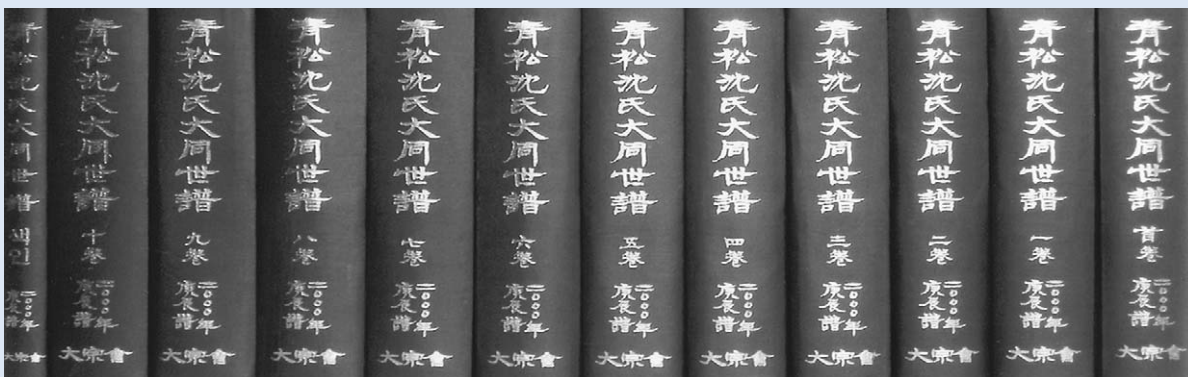
派(地域) 宗會旗 製作 申請

2006년부터 우리門中의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각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회기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종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기존의 종회기를 교체하거나
 -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靑松沈氏大宗會(02-2267-7857)

宗會名	靑松沈氏	宗會
住所		
電話番號	宅:	- -
	휴대폰:	- -
제작금액	150,000원 (깃대포함: 180,000원)	

大同世譜(庚辰譜) 申請案內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경진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 1권)
- ◆ 보급가격 : 22만원(별도구입시 수권 : 40,000원)
- ◆ 송금구좌 : 농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종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입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shim.or.kr)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대동세보 수권 속편(靑松沈氏世考選, 祭享笏記, 宗보축쇄판, 手帖, 뺏지 포함) : 100,000원

信川公派 春川宗會 任員名單

顧問... 淸澤 상복 상진
會長... 相汶
副會長... 상소 화섭
總務... 萬澤
監事... 원섭 의섭
理事... 응섭 남섭 현택 청섭 완택 상선 준섭 봉섭

기섭 건섭

宗 事 消 息

5世祖 安孝公(諱:溫)忌辰祭 奉行

(음 : 12월 25일)



初獻 : 行鎮(안효공종회 會長)
亞獻 : 玄根(안효공종회 운영위원)
終獻 : 載緒(대중회 문화부장)
大祝 : 相弘 執禮 : 載玉 執事 : 應鎮 載澈

5世祖 安孝公(諱:溫)正月節祀 奉行

2010년 2월 14일(음 1월 1일)



初獻 : 相德(안효공종회 副會長)
亞獻 : 文秀(안효공종회 監事)
終獻 : 龍鎮
大祝 : 相弘 執禮 : 載玉 執事 : 彥村 載澈

11世祖 忠翼公(諱:忠謙)配位 忌辰祭 奉行

2010년 3월 5일(음 1월 21일)



初獻 : 載玉
亞獻 : 鳳燮
終獻 : 相厚
大祝 : 昌燮 執禮 : 洪燮 執事 : 재철 영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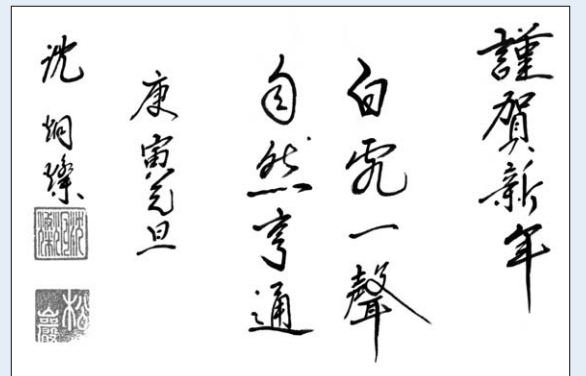
靑松 덕천마을 항일의병선열 및 애국지사 12인 공훈선양 학술강연회 개최



△ 마을대표 심영섭 악은공파 종손의 기념사

들이 청송의진(靑松義陳)에 참가하여 항일투쟁에 앞장섰으며, 이보다 앞서 1592년 임진란 당시에는 벽철 심청(沈淸)선생이 의병에 참가하여 울산 도산 전투에서 순직한 대표적인 충절(忠節)의 마을이다.

한편 마을 출신의 악은(岳隱)종손 심영섭씨는 이번 행사가 “경술국치 100주년 및 3.1절을 맞아 덕천마을이 청송 항일운동의 모태지(母胎地)라는 사실을 주위에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자라나는 후손들에게도 선열들의 삶과 정신을 이어가는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새롭게 알리는 교훈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라고 밝혔다.



- 한말 청송의병장 소류 심성지 등 12인 독립유공자 최다 배출 -

전국에서 마을단위 항일의병선열을 최다 배출한 덕천마을의 의병선열 및 애국지사 12인에 대한 공훈선양을 기리고 재조명하는 행사가 한동수 청송군수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지역내 종인 및 출향인 그리고 본 마을이 세거지인 덕천마을(윗마을)의 아산장씨(牙山蔣氏)문중의 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1일(월)11:00 청송읍 월막리 관경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경술국치 100주년 및 제91주년 3.1절을 맞아 청송지역 관내 우리 靑松沈氏門中과 牙山蔣氏門中이 공동 주최한 금번 행사는 서훈 기념식에 이어 안동대 신두환 교수의 “청송 항일의병운동과 덕천마을 사림들의 항일투쟁”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덕천마을은 우리 본향인 청송의 대표적 집성촌으로 지난 1896년 병신창의 당시 청송의진의 창의장 이었던 소류 심성지(沈誠之)선생을 중심으로 11인의 마을 선열

□ 덕천마을 출신 의병선열 및 애국지사 현황

- 심성지(沈誠之) 1831~1904 건국훈장애족장(95) 의병 청송의병창의
- 심의화(沈宜華) 1840~1921 건국포장(97) 의병
- 심능규(沈能奎) 1850~1897 건국포장(05) 의병
- 장무호(蔣武鎬) 1852~1926 건국포장(97) 의병
- 장한탁(蔣漢倬) 1852~1930 건국포장(97) 의병
- 심능장(沈能璋) 1855~1903 건국포장(01) 의병
- 심의철(沈宜喆) 1856~1909 건국포장(97) 의병
- 심능찬(沈能燦) 1859~1903 건국포장(97) 의병
- 심의식(沈宜植) 1860~1937 건국포장(05) 의병
- 심의택(沈義澤) 1862~1910 건국포장(97) 의병
- 심진택(沈鎭澤) 1864~1933 건국포장(03) 의병
- 심 훈(沈 勳) 1929~2007 대통령표창(99) 학생운동
- 심호택(沈琥澤) 1862~1933 미서훈
→ 보훈처심사위심의계류중
청송군청 문화재 계장 심남규 제공

祝

법조봉사상 수상
2009년 12월 17일
변호사 심 훈 중
空軍 准將 進級
沈 淸 用

대전·유성지구 知成主事公派 執義公宗會 감사 揆模씨의 長男 淸用 將軍은 空士 32期生으로 2009년 12월 15일부로 空軍准將으로 영전하여 대구전투비행단 작전사에 보직되었음.

訃 告

沈相鎬 (前 동아일보 운전부장, 前 판관공중회장)님께서 1월 28일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아들 : 大燮
딸 : 美燮 惠燮 惠順 惠貞

심장섭 「농학박사」 취득

- 청송군 최초 박사학위 취득 공무원 배출 -

청송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근무중인 심장섭(51)은 2010년 2월 19일 11시 안동대학교 슬피문화회관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심장섭 기술보급과장은 1979년 경기도 파주에서 지도사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86년 청송으로 전입과 청송군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에 큰 기

여를 하였다. 특히 고추, 사과 등 채소, 과수분야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민과 어려움을 같이 하면서 많은 영농문제들을 해결해왔으며, 새로운 농업기술을 청송군 농업인에게 확대·보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던 중 2000년 좀더 깊이 있고, 부가

가치적인 농업발전을 위해 안동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2002년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금년에『사과 생산지의 재배환경 조건이 기능성 물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논문의 주 내용은 사과의 생산지별 이화학적 특성과 사과로부터 분리된 페놀성 항산화물질의 항산화 작용 및 항염증 작용기작에 대한 내용이다. 200m 이상의 고도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종합적 식미, 기능성 성분 등이 200m 미만보다 높다는 것과, 특히 고도가 300m 이상일 경우 당도, 비타민C, 착색률이 증가 한다는 내용

이었다.

심장섭 기술보급과장은 이러한 연구내용을 직접 현장에 접목하여 고품질 기능성 사과 생산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사과의 기능성물질 작용기작을 소비자에게 홍보함으로써 지속적인 사과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에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에 따른 학위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으며, 아낌 없는 격려도 하겠다고 밝혔다.

▶서론(序論)

어느 제향(祭享)이든 꼭 한 두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예법이 전부인양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갑론을박(甲論乙駁)하며, 심지어는 고래고래 소리를 높여 가며 망자(亡者)에 대한 비례(非禮) 망동(妄動)을 저질러곤 한다.

제사에 대한 예법이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풍속(風俗)이라 할 수 있으며, 살아생전 못다 한 부모님에 대한 효(孝)를 다하는 것이며, 오늘날의 세상에 자신을 있게 한 면 조상들을 잊지 않고 그 은덕(恩德)이나 마 기리고자 하는 의례(儀禮)인 것이다. 그러나 세월의 변천에 따라서 그 예법(禮法)도 당연히 변하여 왔을 것이니 시대(時代)마다, 지역마다, 씨족(氏族)마다, 門中마다, 가정마다 다를 것이며, 또 보고 듣고 배운 바가 각자 다르다 보니 그 행하는 의례나 예법도 다를 것이다.

지난 500년 이상을 예송논쟁(禮訟論爭)을 일삼으며 끊임없이 파당(派黨)을 짓고 붕당(朋黨)을 만들어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든 것이 또한 위와 같은 의례(儀禮)의 행위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수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가장 말도 많고 탈고 많다는 소위 진설의례(陳設儀禮)의 학문적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를 조사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본론(本論)

제수(祭需)의 진설방법에 대해서는 가가례(家家禮)라 하여 지방과 집안마다 각기 그 특색이 있는데, 이를 크게 나누어 둘로 정리한다면 기호학과(畿湖學派)와 영남학

파(嶺南學派)의 학통을 따르는 두 진설 방법이 있다. 즉, 기호학과인 울곡선생(栗谷先生)의 진설법과 영남학과인 퇴계선생(退溪先生)의 진설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前者는 서쪽을 상위(上位)로 할 것이냐의 이서위상(以西爲上)과 後者의 경우는 동쪽을 상위로 할 것이냐의 음양사상(陰陽思想)으로 정립(定立)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예법을 달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자는 서쪽이 상위이므로 붉은 것을 서쪽으로 진설하며(조율시이 : 棗栗柿梨), 따라서 고기의 머리도 당연히 서쪽으로 향하는(서두동미 : 西頭東尾) 것이고, 반대로 후자

에 모시며, 비(妣)의 조상을 동쪽으로 모신다. 따라서 서쪽이 높다하여 붉은 것은 높기 때문에 서쪽부터 진설하는 것이요, 계적(鷄炙)이나 어적(魚炙)의 머리와 포(脯)의 머리도 당연히 서쪽이 높기 때문에 머리를 서쪽으로 진설하는 것이다. 또한 숙서생동(熟西生東)이라 하여 익힌 것은 서쪽에, 날 것은 동쪽에 진설하며, 서포동해(西脯東醢)라 하여 포는 서쪽에, 식해는 동쪽에 진설한다. 서두동미(西頭東尾)라하여 머리는 서쪽으로 하며, 꼬리는 동쪽으로 진설하는 것이다. 이는 “신도(神道)는 오른쪽(서쪽)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이치와 같다.

에 놓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홍동(紅東)은 사과를 말하고, 백서(白西)는 배를 말하는 데, 연안이씨 배찬식(排撰式)은 붉은 것을 모두 동쪽에 놓고, 흰 것은 모두 서쪽에 놓아 홍동백서의 뜻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참고로 연안이씨의 족보 부록에 나와있는 배찬식(排撰式)에는 오행(五行)으로 하여 홍동백서(紅東白西), 어동육서(魚東肉西), 생동숙서(生東熟西), 좌포우해(左脯右醢), 동두서미(東頭西尾)로 진설한다고 하였으니 전형적인 영남학파의 영향을 받은 듯 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자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음양사상에 따라 동쪽은 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논리의 홍동백서를 주장하는 영남학파에서 정작 신위를 모심에는 서쪽을 상으로 하는 이서위상(以西爲上)을 택함을 웬지 설득력이 없지 않나 싶다.

필자는 고향이 경남지방이라 대대로 영남학파의 영향을 받아 홍동백서로 진설해 왔으나 신도(神道)는 오른쪽을 높이는 것이니, 신의 오른쪽이 서쪽이므로 以西爲上의 진설법인 기호학파의 학설이 더 예에 어그러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리하여 위의 글을 살피건대 각자가 행하는 예는 누구나 옳바르다고 볼 수 있으며, 틀리다고 나무라진 말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회적 또는 문중내부에 물의를 일으킬 만큼의 지나치게 예가 아닌 행위정도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서울市 支院報에서 轉載

조율시이(棗栗柿梨)와 홍동백서(紅東白西)의 학설적인 유래에 대한 愚考

는 동쪽이 상위이므로 붉은 것을 동쪽으로 진설함(홍동백서: 紅東白西)에 고기의 머리도 당연히 동쪽으로 향하는 (동두서미: 東頭西尾) 것이다.

먼저 학설에 의한 기호학과(畿湖學派)부터 살펴려 한다. 기호학파의 영수(嶺首)는 울곡선생인데 경기지방을 비롯하여 충청과 호남지방까지의 지역에 걸쳐서 오랜 세월동안 뿌리 내린 예법으로서, 서쪽을 상위로 보고 진설하는 이서위상(以西爲上)으로 棗栗柿梨와 西頭東尾를 곱을 수 있다. 조율시이(또는 조율이시)의 진설법은 망자(亡者)는 以西爲上이라 하여 사당(祠堂)에 조상을 모시더라도 가장 윗대 조상을 서쪽에 모시며, 묘소에도 고(考)의 조상을 서쪽

반면에 학설(學說)에 의한 영남학파의 영수(嶺首)는 퇴계선생인데 경상도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퍼진 예법이다. 음양사상을 배경으로 발전된 이 예법은 동쪽이 양(陽)이니 동쪽이 상위가 되고, 서쪽이 음(陰)이니 그 다음이 된다. 따라서 동쪽을 상위로 하는 홍동백서(紅東白西)와 동두서미(東頭西尾)의 진설법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결론(結論)

학문사에서 출판한 제례해설 219페이지에 “대개 과속(果屬)은 조율시 홍동백서(棗栗柿紅東白西)라 하여 대추는 서쪽에 놓고 다음이 밤이고, 또 다음이 감이며, 사과는 붉다하여 동쪽에 놓고 배는 희다하여 서쪽

判官公派 馬山宗中 運營委員會 名單

顧問: 鍾秉재기 사보점보 규실
會長: 申보
副會長: 尹동영락
監事: 尹곤성규
總務: 尹송
財務: 尹광수 형보 주보 소보 대보 정보
委員: 尹심실 호조 규관 성보 기보

마산종중 정기총회

日場: 大우백화점 一八층부페
時所: 五월 一六일 一〇시 三〇분
많은 참석바랍니다.

大田·儒城地區 知成州事公 派 執義公宗會 任員名單

顧問: 原重
副會長: 揆淳
總務: 爽用

會長: 揆璨
監事: 揆模
理事: 揆完 根用

一山法串宗會 任員名單

顧問: 後燮 仁燮 載緒 昌輔 元輔 昌錫
會長: 載烈
副會長: 完輔
總務: 載成
監事: 仁輔 光輔
理事: 載麟 載鉉 炯輔



심 갑 보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위원회 위원장
(삼익THK(주) 대표이사)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제도 안정적으로 정착돼야

지난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어느 해보다 격동의 한해를 보냈습니다. 노사인력위원회는 위원 여러분이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노사 관련 현안에 있어 경제계의 의견을 정부와 정치권, 언론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금년에는 경제회복과 더불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희망찬 庚寅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어느 해보다 격동의 한해를 보냈습니다. 노사인력위원회는 위원 여러분이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노사 관련 현안에 있어 경제계의 의견을

정부와 정치권, 언론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노사인력 문제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해결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연초 노사민정이 일자리 지키기·나누기에 합의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큰 탈 없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경제회복과 더불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한상의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벽에 가로막혀 법개정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해말 13년을 끌어온 노동조합법 개정과정에 대한상의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계의 의견을 대변한 바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법을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제도운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타임오프의 한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노사관계의 선진화도 시급합니다. 지난해 노사화합을 선언한 사업장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고 합리적 노사운동으로 전환한 사업장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격한 불법쟁의행위의 구태가 여전하여 노사관계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동운동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제도 등의 법제를 지금의 산업구조에 맞추어 유연하게 개편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성과 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인력위원회는 금년에도 많은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 여러분과 회원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한상의 노사인력위원회는 2010년에도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사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회 부회장 심갑보

값진 눈물

대중회 부회장 심갑보

세상에는 참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 앞에서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부터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애통하는 자의 눈물까지
우리는 생사고락의 순간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참으로 특별한 눈물을 보았습니다.
외롭고도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고
내가 나를 딛고 일어서는 합일과 성취의 순간!
김연아 선수가 흘린 그 눈물은 보고 또 보아도
아름답고 값진 눈물이라 절로 눈물납니다.

다시 한번 자랑스런 박수를 보냅니다.
오래오래 이 값진 눈물을 기억하고 싶어집니다.

교직을 떠나는 길목에서

술 (酒)

마음 맞는 사람과 술잔을 주고받을 때의 즐거움을 무어라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막걸리는 시금 텅텅한 데다가 먹고 나면 속이 답수룩하고, 양주는 값이 비싸고 너무 독하며, 정종과 소주는 좋은 안주가 있어야 하고, 맥주는 헛배만 부르고 소변만 자주 나온다. 나이가 들면서 내 성미에 맞는 술은 알콜 농도 13도 정도의 민속주가 적당한 것 같다.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기 마련인데 그때 마시는 술은 흥을 돋구기도 하고, 마음을 달래거나 울분을 터뜨리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술을 잘못 마시면 가정의 웃음을 빼앗고 주변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키기도 한다. 아직까지 나는 주정(酒酩)을 부리거나 음주로 말미암아 남과 크게 싸운 적은 거의 없다.

나는 술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많이는 못하니 주객(酒客) 축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평상시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은 허전한 내 마음을 메워주고, 포근한 술의 정(情)에 취해 보기 위함이다. 한두 잔의 술은 몸에 약이 되고 기분은 즐겁게 하지만 어찌다가 주량이 많아지면 화를 자초할 수도 또 병이 될 수도 있다.

술이 없는 세상은 정(情)이 메말라 친구도 없어지고 멋도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단(校壇)에서 목청을 높여 종일 수업을 하고 나면 피로하고 목이 썩컬하여 술 생각이 날 때가 많았다. 마음 맞는 선생님과 학교 부근의 단골 술집을 찾아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도 풀면서 주머니 받거나 하다가 야간 통행금지 시간직전에 가까스로 집에 들어간 적도 있었다.

기쁨 때나, 슬플 때 술이 따르기 마련이다. 다소 거리감은 느끼고 있는 친구라도 술 한 잔에 오해를 풀 수도 있고, 평소에는 친구끼리 우정을 다지면서 고민이나 스트레스도 풀 수 있으니 술은 장점도 많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술만 마시면 술상을 뒤엎거나 시비를 걸어 좋은 술좌석을 망쳐 놓는다. 그런 친구와는 가능한 술자리를 피하도록 하는 반면, 상대방의 술맛을 돋구어주는 진짜 술친구와는 우의(友誼)를 더욱 돈독히 하면 평생 서로 의지하는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가끔 녹음이 짙은 숲 속에서 집사람과 나무, 물소리, 바위를 벗하여 준비된 음식과 술을 놓고 마주 앉아 집사람이 20년이 넘은 손바닥의 악성습진(不治)으로 거칠 대로 거칠어진 투박한 손으로 다소곳이 따라주는 한잔의 술은 참으로 맛이 있고, 또한 집사람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다. 풍류객이 어디 따로 있겠는가? 이렇게 절로 절로 신선이 되어 살아가는 거지...

釜山 가야여중학교 校長 海月 沈碩輔

◆ 2010년 春季 時享日表 ◆

世	휘(諱)	陽曆	曜日	陰曆	所在地	世	휘(諱)	陽曆	曜日	陰曆	所在地
始祖	文林郎公(휘: 洪孚)	4월 6일	火	寒食	靑松邑 덕리 보광산	五	三韓國大夫人	4월 27일	火	3월 14일	安城市 금광면 오흥리 능말
	中臺山所	4월 6일	火	寒食	靑松邑 부곡	六	良惠公(휘: 石雋)	5월 3일	月	3월 20일	龍仁市 포곡면 동막리
二	閣門祗候公(휘: 淵)	4월 24일	土	3월 11일	咸悅邑 남당리 남당산	七	忘世亭公(휘: 璿)	5월 6일	木	3월 23일	南楊州市 오남읍 양지리
三	靑華府院君(휘: 龍)	4월 26일	月	3월 13일	安城市 당왕동 산19	王后	昭憲王后	4월 28일	水曜日		驪州郡 능서면 英陵
三	配位 金氏	4월 26일	月	3월 13일	安城市 도기동 산64	王后	仁順王后	4월 25일	4월 넷째 일요일		노원 공릉동(태릉內 康陵)
四	靑城伯(휘: 德符)	4월 28일	水	3월 15일	漣川 미산면 아미리 10	王后	端懿王后	3월 28일	3월 넷째 일요일		구리시(동구릉內 惠陵)
四	配位 淸州宋氏	4월 30일	金	3월 17일	淸州市 분평동 산8		淑容沈氏	4월 18일	4월 셋째 일요일		은평구 진관동
四	岳隱公(휘: 元符)	5월 8일	土	3월 25일	靑松郡 파천면 덕천 景義齊		世宗大王	4월 8일	木曜日		驪州郡 능서면 英陵
五	安孝公(휘: 溫)	4월 6일	火	寒食	水原市 영동구 이의동		宗廟大祭	5월 2일	5월 첫째 일요일		종로구 종로3가 宗廟
六	恭肅公(휘: 澮)	4월 6일	火	寒食	파주시 월릉면 영태리						

人事

상비 :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 실장
 남섭 :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 Unit 팀장
 동욱 : 포스코 ICT 경영기획본부장 상무
 우영 : 상명대 어문대학장
 재송 : KB투자증권 기업금융팀
 載哲 : 서울중앙지검 검사
 亨錫 :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玟廷 : 의정부지검 검사
 영섭 :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본부장
 봉종 : 외환은행 반포본동 지점장
 문섭 : 외환은행 잠실남 지점장
 방섭 : 한국토지주택공사 2급팀장 주택설계2처 건축설계1
 종래 : 한국토지주택공사 2급 단장 법무
 미경 : 인제대 인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전문위원장
 영수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본부 이전추진단장
 재연 : 대불대 기획처장
 동현 : 국토해양부 국장급 국립해양조사원장
 치호 :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심경 : 대법원 법원행정처 인사2심의관
 재남 : 대법원 재판연구관
 우용 :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준보 : 지방법원 청주지법 영동지원
 심담 : 지방법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연수 : 고등법원판사 서울고법
 현주 : 지방법원판사 서울중앙지법
 재광 : 지방법원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의표 : 대한언론인회 이사
 입섭 :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조직위 대외협력국 홍보부장
 재용 : 연세대의료원 강남연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수만 : 홍익대의 과학기술대학장
 재동 : 노동부 대구북부지청장
 재석 : KT&G 원주제조창 원료가공부장
 영구 : KT&G 김천원료공장 STS부장
 상열 :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성장연구본부장
 흥수 : 경상대 국제지역 연구원장
 영진 : 언론중재위 운영본부장
 규남 : 목포대 교육행정원장
 두석 : 목포대 생활과학예술 체육대학장
 영보 : CBS 편성부장
 승현 : CBS TV제작국 제작부장
 덕섭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재문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겸 편집부장
 상협 : 지식경제부 서기관 무역진흥과

任 員 會 費

載緒	2010	50,000	문화부장
載烈	2010	50,000	일산
完輔	2010	50,000	일산
龍燮	2010	50,000	안산
奉燮	2010	50,000	도곡동
載萬	2009	50,000	광탄면
載勳	2010	50,000	김포
載澈	2010	50,000	용두동
載冕 監事	2010	200,000	인천
星求	2010	50,000	구기동
仁燮	2010	50,000	춘천
相祐	2009~2010	100,000	춘천
賢錫	2010	50,000	대구
元輔	2009	50,000	과천
載善	2010	50,000	인천
茂植	2010	50,000	삼척
正植	2010	50,000	겸면
鍾洪	2010	50,000	부천
揆實	2009~2010	100,000	마산
仁求	2010	50,000	과천
相殷	2010	300,000	副會長
鍾根	2009~2010	100,000	全州
江水	2010	50,000	仁川
亨求	2010	50,000	화곡동
鍾德	2009	50,000	光州
載政	2010	50,000	全州
鎭奎	2010	50,000	慶南고성
容圭	2010	50,000	회현동
相根	2010	50,000	全州
相億	2010	50,000	水原
敏燮	2010	50,000	原州
相龍	2010	50,000	水原
明燮	2010	50,000	정릉
揆璨	2010	50,000	대전
大植	2010	50,000	인천
相郁	2010	300,000	副會長
相甲	2010	50,000	철원
相夏	2010	50,000	철원
載洪	2010	50,000	청송
暎求	2010	50,000	진관동
相和	2010	300,000	副會長
尙道	2010	50,000	전주
堯澤	2010	50,000	당산동
相汶	2010	50,000	춘천
昌輔	2010	50,000	남양주
萬澤	2010	50,000	춘천
東燮	2010	50,000	춘천
相國	2010	50,000	청송
應夏	2010	50,000	고양
錫鎔	2010	50,000	화성
宗玉	2010	50,000	용인
相勛	2010	50,000	여의도
觀燮	2010	50,000	光州
殷植	2010	50,000	송파
宜哲	2010	50,000	대전
柱燮	2010	50,000	진주
在圭	2010	50,000	진주
相圭	2010	50,000	인천
一用	2010	50,000	안성
玄根	2010	50,000	대전
逸燮	2010	50,000	대전
禹植	2010	50,000	의정부
湖澤	2010	50,000	대구
成輔	2010	50,000	청주
載龍	2010	50,000	청주
揆完	2010	50,000	청주
明彦	2010	50,000	청주

中來	2010	50,000	청주
相贊	2010	50,000	양평
佶燮	2010	50,000	익산
泰燮	2010	50,000	신월동
文錫	2010	50,000	일산
光燮	2010	50,000	대치동
愚龍	2010	50,000	김포
昌輔	2010	50,000	등촌동
泳淳	2010	50,000	성남시
龍澤	2010	50,000	성남시
相泳	2010	50,000	익산
仁求	2010	50,000	익산
載浩	2010	50,000	안동
相英	2010	50,000	김포
德求	2010	50,000	인천
在安	2010	50,000	인천
應茂	2010	50,000	인천
相振	2010	50,000	인천
載烈	2010	50,000	대종회
鍾赫	2010	50,000	대종회
種福	2010	50,000	대종회
行燮	2010	50,000	장성
載潤	2010	50,000	하남
花鮮	2010	50,000	예천
相弘	2010	50,000	김포

青松沈氏 舍人公派宗中
 ▷ 獻誠金 : 曉窓公 宗會 10,000,000

5처산소 유사 연락처

세	관 직	소재	유사	전화번호
시 조	문림랑공	청 송	能光	010-9236-2331
			相燾	010-6889-7733
2 세조	합문지후공	합 열	載集	011-676-1150
3 세조	청화부원군	안 성	光澤	011-732-5768
4 세조	청성백	연 천	良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輔	019-480-9994

青 松	청송심씨 찬경회관	054-874-3400
	館長 載洪	018-505-7611
	악은공중회 총무 相學	010-7136-3572
淸 州	청 주 회 관	043-286-7857
大 田	뿌리공원 안내 玄根	011-429-6760

宗 報 贊 助

갑섭(主木會)	300,000	인천
상천(무한건설)	300,000	예산
일산 법곶중회	400,000	
안동중회	100,000	
춘천 신천공과중회	100,000	
춘천 신천공중회장	100,000	
관공공과 마산중회	300,000	
상후	20,000	월계동
윤도	30,000	응봉동
재연	50,000	안산
웅택	30,000	인천
무섭	30,000	순천
명섭	30,000	순천
상유	30,000	철원
귀동	30,000	완주
영보	20,000	수유리
향보	30,000	전주
相慶	50,000	신월동
상만	50,000	全州
湖澤	50,000	대구
文錫	50,000	일산
靖夷公宗會	100,000	여비리
晉州宗會	100,000	이반성
재환	50,000	고양
민섭	30,000	월곡동
禹植	50,000	의정부

송 금 안 내
 任員會費·贊助金·宗報贊助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종회)
 ** 인터넷 족보 수단금 계좌 **
 • 농 협
 301-0019-5484-91 (청송심씨대종회)
 청 송 심 씨 대 종 회
 전화 : (02)2267-7857